

켜켜이 쌓아 올린 마음…‘돌’로 그려낸 믿음의 풍경

윤준영 개인전 ‘밤을 닫고, 켜켜이’…14일까지 예술공간 집

돌탑에 기대 선 ‘작은 집’…존재의 의미에 투영된 심상 삶의 흐름 속 관계맺기, 시공간 초월 영속적 희망 서사

윤준영 작가의 그림은 집이나 건물, 미로와 같은 기하학적 구조와 함께 텅 빈 공간, 거대한 자연, 어둠과 같은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다.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결핍이나 고독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들이 선명하게 느껴진다. 한지에 면과 풍토로 세밀한 작업을 구현해낸 그의 작업은 무채색 배경과 어우러지며 몽환적이 고도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정한 시공간을 넘어 인간 실존에 대한 불안을 주제로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윤 작가의 개인 전이 3년 만에 열린다. 오는 14일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열리는 윤준영 작가 6번째 개인전 ‘밤을 닫고, 켜켜이’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돌’을 소재로 삶에 대한 태도와 믿음을 그려낸 근작 중심 20여점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작가는 각기 다른 모양의 돌들을 겹쳐하게 쌓아 올린 돌탑을 보고는, 그 균형을 맞춰 쌓는 행위에 어떤 효능감이 있어 믿음을 공고히 하거나,

또는 그라질 바라는 기도와 같다고 생각 했다고 이야기한다.

그의 작업에 있어 ‘돌’은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보편적 상징이자 믿음의 대상이다. 돌탑을 쌓으며 소원을 빌거나 불상을 새기는 등의 불교적 행위는 시대와 종교를 넘어 인간이 마음 속 염원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다.

작가는 빛과 바람, 비 등 자연적 요소의 영향을 받으면 몇 천년에 걸쳐 깨이고 닳으며 둥글게 변형되는 과정 속 인간의 생애와 비교할 수 없는 시간성을 지닌 ‘돌’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 돌의 시간성과 형태, 균형을 화면 위에 고스란히 옮겨 불안과 취약함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는 태도인 ‘믿음’을 시작화했다.

화면 속 돌의 크기와 모양새는 모두 다르지만, 서로 밀고 당기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 때론 작은 돌 하나만으로 연결된 상태로 단단하면서도 위태로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

돌과 함께 등장하는 ‘작은 집’은 작가 자신을 의미한다. 작은 집은 돌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잠시 떨어져 있기도 하면서 화면 속 하나님의 존재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집은 돌을 지탱하거나 돌 안에 숨기도 하면서 예술가로서의 작가 자신



‘어떤 믿음’

을 투영시킨다.

최근작인 ‘Belief’ (2025), ‘불확실한 믿음과 그 럼에도 불구하고’ (2025), ‘같은 믿음 위에’ (2025) 등은 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계와 균형, 불안과 믿음의 긴장을 보여준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돌은 관객에게 시각적인 긴장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

전시장 한켠 작은 방에서는 한지로 감싼 커다란 돌탑 설치 작업도 만나볼 수 있다. 관람객들은 작은 돌들을 이곳에 차곡차곡 쌓으며 작품에 동참해볼 수 있다.

문화영 예술공간 집 대표는 “작품 속 다양한 돌의 형상은 불안과 혼들림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탱하려는 마음의 은유”라며 “돌탑을 한 층 한



돌탑 설치작업 전경

층 쌓아 올리듯,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 굳건히 내딛는 걸음처럼, 이번 전시가 삶을 지탱하는 믿음의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전시 보고, 굿즈 받고…‘디어마이위크’ 축제

광주문화재단, 내일 성과공유 한마당

광주문화재단은 8일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 ‘디어마이광주’의 오프라인 축제 ‘디어마이위크’가 오는 11일까지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광주시 흥보 성과 공유회 ‘2025 별별흥보G’와 연계,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 흥보 모델을 제시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오는 10일 오후 3시에는 ‘성과공유 한마당’이 진행된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Asian Arts Special Award’를 수상한 크리에이티브아트(대표 이승규)가 업사이클 악기를 활용한 콰르텟 무대를 선보인다. ‘트래파’, ‘베사 메무찌’, ‘힘’ 등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래퍼토리로 특별한 축하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디어마이광주와 함께 활동 중인 지역 예술가들의 전시도 만나볼 수 있다.

▲김하슬 ‘삶과 치유의 서사를 담은 회화’ ▲수우림 ‘사회적 고정관념을 탐구하는 실험적 작업’ ▲염순영 ‘작은 사물의 아름다움을 포착한 감성적 작품’ ▲유순 ‘자연과 인간의



크리에이티브아트

내면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회화’까지. 4명의 창작자가 각자의 감수성과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을 선보인다.

온라인에서는 ‘디어마이광주 포인트마켓 (<https://dmngjk.r/>)’이 동시에 진행된다. 출석체크, 게시글 작성 등을 통해 적립한 포인트로 ▲전동민! 작가의 ‘광주 전경’ 스카프 ▲박현주 작가의 ‘운해’ 텁블러 ▲디어마이광주 공식 굿즈 등 상품을 교환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시립창극단 ‘열어볼 결심’, 송년 무대 장식

오는 12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시민들과 함께 어울릴 따뜻한 전통문화예술의 장이 펼쳐진다.

광주시립창극단이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특별기획공연 송년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을 선보인다.

지난 5월 ‘천변만화’(千變萬化) 시리즈로 첫선을 보인 뒤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호응을 얻은 작품으로, 연말 무대에 맞춰 더욱 풍성한 이야기와 음악을 담아 다시 돌아온다.

마당창극 ‘열어볼 결심’은 판소리 다섯바탕 주인공들의 후일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흥보의 초대 편지를 받고 선물을 얻기 위해 도화동 복덕촌에 모인 심학규, 춘향, 토씨, 심청, 끝동이 각자의 절박한 사정을 풀어내려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연달아 펼쳐진다.

특히 눈을 뜯 뒤 시니어 인생강의의 인기 강사가 된 심학규, 연예기획사 대표로 변신한 춘향, 명품 브랜드 CEO가 된 심청 등 익숙한 인물들이 현대적 설정으로 재탄생한다. 판



광주시립창극단 ‘열어볼 결심’ 공연 모습

소리에 K-팝·트로트·EDM 등 다양한 장르를 자연스럽게 결합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로 구성한 점도 특징이다.

이번 공연은 김용호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오진욱 연출, 임영욱 작가, 흥정의 작곡, 신유진 작창, 배승현 안무 등 기존 제작진이 다시 호흡을 맞춘다. 여기에 단원들이 밀도 높은 연기와 에너지로 완성도를 더한다.

/최명진 기자

수익형 전원마을 담양송이마을 토지분양

【국내 최대 스마트팜 재배단지】

스마트팜 설비로 누구나 참송이버섯 재배 가능 | 참송이버섯 재배로 매월 안정된 소득

체류형 쉼터 / 세컨 하우스 / 주말농장 / 개인캠핑장 / 동·식물 관련시설 / 창고부지 등 입주 가능

각 필지 8m도로 접. 250평 분양(전용률80%)
토목공사. 기반시설. 분양가 : 3.3㎡/45만원



수익형 전원마을 담양송이마을 토지분양

【국내 최대 스마트팜 재배단지】

스마트팜 설비로 누구나 참송이버섯 재배 가능 | 참송이버섯 재배로 매월 안정된 소득



토지 분양 가격 : 담양 최저가 3.3㎡당 50만원
1차 분양 입주완료
2차 토목공사 완료 - 선착순 위치선택



송이마을
전남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31-6번지

☎ 062)222-0037 / H. 010-4323-5252